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제언: 잃어버린 한민족 뿌리역사의 원형을 찾자(II)

역사학 춘추전국시대! 한민족사가 바로 서야 세계사가 바로 선다

참 진리의 역사 종교관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뿌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인류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진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진리의 학문 안에 참 진리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진리의 종교, 철학과 과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각자에게 “너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천태만상의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질문의 정답을 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태초부터 인간과 우주의 역사를 설계하고 운행해 온 신적 존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4대성현들의 말씀에 의존하여 인생과 우주만물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하여 그들의 가르침인 종교와 역사를 연구하고, 철학과 과학의 힘으로 인생과 존재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인생과 존재에 대한 정답을 말해준 사람은 조희성 구세주 외에는 아무도 없다.

서양의 유물론적 진화사관은 올바른가

오늘날 우리민족의 역사문제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몇 개의 민족과 국가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인간 본연의 이기주의적 탐욕의 유희를 즐기며 말 그대로 이아깃거리를 창출하고 있으니, 역사학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과장 혹은 확대하거나 과거 미개했던 시절 서로를 죽이며 정복했던 영웅담의 역사를 만들고만 있을 뿐 인간 본질의 삶과 존재에 대한 문제나 미래의 나아갈 방향과 인류현실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철학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인류사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

나 종교과학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인류와 우주의 기원론을 논함에 있어, 그들은 인간 자체를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로 여기는 유물사관의 바탕위에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빅뱅론을 더하다 보니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존재는 사라지고 물질 초월적이며 신적인 측면의 존재가 치와 역사의 설명은 아예 없으니 역사 철학의 뿌리가 없는 거짓된 역사 이야기 꾸미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그들 서양 역사를 빛내는 것이요, 서양 우위적 과학적 진화사관이라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학문을 가르침은 그 역시 인간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영혼 없는 인간을 만들고 있으니 세계적인 전쟁과 테러, 강간과 음란의 문화가 더욱 발달하여 인류 파멸의 사회악이 급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 스스로 양심과 정신과 영혼을 도려내버린 유물론적 유물사관을 가르침으로써 진정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나 기타의 종교적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의 역사와 종교 속에서 해매고 있는 것이다.

동양의 사면적 역사관은 올바른가

그렇다면 동양 역사가들의 종교과학적 측면이 부족한 이상 신학의 역사관은 어떠한가? 역사 기록에 있어서 유일하게 서양에 앞서 있다는 동양적 역사철학이나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중국, 일본, 유라시아의 북방민족이나 중국동의 역사는 성경 역사와 불교, 유교, 도교적인 역사관 아래 인간 자신의 존재 문제를 천순민족이라는 바탕아래 오랜 역사 기록을 가진 것이 선진 역사라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이 더욱더 남의 역사를 말살시키고자 하거나 깎아 내리고, 자기 역사는 과장하고 왜곡 확대하는 역사 이야기를 꾸미려 하는 것은 결국 모두의 역사가 거짓이요, 천순민족의 뿌리 역사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이기주의적 인간의 마귀 역사만 주장하는 격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탐원공정의 역사가 한민족의 역사를 도적질하는 것이며, 우리민족의 환단역사론 역시 우리 것만의 천순 역사는 있고, 다른 민족의 천순 역사는 아니라 한다면 그 또한 다

른 민족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보다 오래 되어야 하는 것을 고집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정통성과 직계장자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의 차이점을 부각해야 할 뿐이다.

그런가 하면 저 일본의 역사관 역시 한민족의 고대 역사가 그들의 고대 역사의 한 부분이자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이면서도 고대 패망한 역사의 후손이라는 역사의 수치를 숨기고자 한민족의 고조선 역사 지우기와 임나일본부설을 내세워 오히려 패망하여 쫓겨난 민족이 지배한 역사라고 하며 땅따먹기 정복의 역사를 날조하여 역사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이 이러한 역사 왜곡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역사를 거짓되게 하고 자기 조상을 모독하는 역사를 쓰게 되니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써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모두가 동양적 토착 사면적 이상 신학의 역사 이야기와 있어야 하는 것은 부류의 역사가들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바탕 위에 인류사 전체를 내다 보지 못하는 동양적 사면적의 역사관과 나와 우리 위주의 소아적 좁은 역사관 때문에 서양의 유물론적 유물사관과 진화론의 역사관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대로 서두에 던진 질문에 올바른 답을 얻고 인간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철학과 과학적 종교 역사관의 바탕위에서 인류사의 시원을 연구하고, 각 나라 역사를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진리의 역사를 논해야 할 것이며 인류구원을 위한 역사와 종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서보목 / 민족사 바로잡기 운동가

3지역 2개월 연속 1등



3지역 정은경 지회장이 윤봉수 회장으로부터 상금을 받고 있다

지난 2일(화) 본부제단 7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있

었다. 7월 성적은 3지역이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등을 차지하였다. 4지역이 2등을, 5지역이 3등을 차지함으로써 3, 4, 5지역의 3강 구도가 7월에도 이어졌다. 3지역의 1등에는 정은경 권사의 감사헌금, 4지역의 2등에는 박순희 권사의 감사헌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구역 성적으로는 감사헌금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 1등에 25구역, 2등에 33구역이 차지하였고 3등에는 45구역이 차지하였다. 개인 성적으로는 정은경 권사가 월등한 성적으로 1등을 차지하였고 새식구 열매(21일 달성 김우규)와 승리신문 회원 확보 점수가 월등한 신순이 권사가 2등을 차지하였고 박순희 권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7월 성적을 보면 이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차질 없이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복 중의 복을 받은 행운아

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8월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다. 승리제단 식구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절기성금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요절송을 열심히 하자. 자유율법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2등: 4지역(지역장: 박병하, 지회장: 이영애)
-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구역 1등: 25구역(구역장: 정은경)
- 2등: 33구역(구역장: 박순희)
- 3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개인 1등: 정은경 권사
- 2등: 신순이 권사
- 3등: 박순희 권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8)

“상대를 하나님처럼 여겨야”

이긴자도 계속해서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거늘 되지도 못한 주제에 된 척하고 마음의 싸움을 멈추면 그는 지옥 자식인 것이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붉은용 마귀다.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마귀가 아니다.

마음의 싸움을 맹렬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든, 저 사람을 보든 박멸 소탕을 먼저 하면서 상대를 하나님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다. 마음의 싸움에서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초초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행동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움직여질 때에 나를 이겼다가 되고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이다.*

구도의 길



홍익인간과 구세주

상고사 논쟁이 뜨겁다. 재야사학자들이 중심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며 뜨겁게 불을 지르고 있다. 그들은 고조선 역사를 일제가 말살시켰고, 일제는 우리민족 후에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 고조선 역사를 빨리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조선 역사를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따라 강단사학자들과 재야사학자들 사이에 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논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학교에서 국조단군께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국가의 이념으로 고조선 건국했다고 배웠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뜻의 홍익인간 사상은 오늘날 물질 만능과 개인주의의 병폐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현대인들을 구해줄 생명사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요 기막힌 논리라고 해도 진실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설사 아무개가 공중부양을 하고 축지법을 한다고 해도 인간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초능력이 도대체 인간을 위해서 왜 필요한단 말

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요즘 엄청난 초능력으로 흑색무민하는 자들이 있어서서 말이다.

오직 인류를 위한 삶을 살다

반면에 조희성 선생은 진실로 인류에게 유익한 업적을 이루셨고, 앞으로 계속 이루실 것이다. 그 첫째가 바로 세계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버리신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만일 공산주의가 계속 득세하였다면 이 지구는 핵전쟁으로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소멸시킨 것은 유사이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인류를 멸망에서 구한 엄청난 업적인 것이다.

또한 조희성 선생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하여 여름 장마를 계속 막으시고, 태풍이 불어 오지 못하게 하며, 풍년을 주고 계신다. 이것 또한 굶주림에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민족의 풍요에 대한 염원을 해결해 주신 것이다. 더 나아가 조희성 선생은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영력(靈力)으로 막고 계신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인류에게 이로운 일은 양식을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감로(甘露)라는 하늘의 양식을 인류에게 먹여 영생의 세계를 건설하고 계신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분이 홍익인간 사상을 완벽하게 이루는 전 인류의 구세주인 것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인생은 고태(苦海)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태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태를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만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